

■ ■ ■ 최연소합격기
(제54회 행정고시 행정직렬 최연소합격)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김민지

- 1989년 4월 생
- 이화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3년 재학 중
- 제54회 행정고시 행정직렬(일반행정직)
최연소 합격

아직 부족한 실력으로 합격하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수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시작합니다.

I. 2009년 9월~2009년 12월

저는 2009년 9월에 본격적으로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여름에는 행정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면서 합격생 분들의 수기도 읽어 보고, 선배들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공부 계획을 미리 짜고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여유를 두고 이것저것 알아본 것이 9월부터 공부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당시에는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 수업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가서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했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에 넘쳐 목표한 시간만큼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다. 다만 당시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학 시간이 꽤나 걸렸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이것이 부담이 되어 12월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 가장 먼저 시작한 과목은 경제학이었습니다. 학원에 가는 것보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진욱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그 이외

의 시간은 복습을 하는 데 썼습니다. 전공이 정치학이고 경제는 고등학교 때도 선택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를 통해 이해할 때까지 다시 보았고, 따라서 복습을 하는 데 4-5시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연습 문제를 푸는 데는 물론 무리가 있었지만 최대한 혼자 힘으로 풀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009년 2월에 경제원론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했는데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가 2차 공부에 적합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병행하는 방법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인터넷 강의 수강을 마친 것은 10월 초순이었습니다.

경제학-행정법-행정학-정치학 순서대로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 기본강의를 다 들은 후에는 김기홍 선생님의 행정법 예비순환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행정법 공부도 처음 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비순환 때는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만 목표로 하고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특강을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교과서와 수업 필기를 중심으로 공부했고, 따로 정리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법 예비순환을 들으면서 밤 시간(9시-11시 정도)에 두 시간 정도를 따로 빼서 경제학을 간단히 복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제학이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기본강의만 듣고 다음 1순환 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 경제학을 한 번 더 복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복습을 하면서 교과서 연습 문제를 두 번째로 다시 풀었습니다.

행정법 수강 기간은 경제학에 비하여 짧았고, 이후 바로 행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1월 첫째 주까지는 행정법을 끝내고 행정학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 예비순환은 이명훈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교재는 행정학의 맵과 틀, 그리고 새행정학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행정학을 처음 배울 때는 경제학이나 행정법 보다는 이해가 쉬웠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그 날 들은 강의 내용의 복습까지 마친 후에는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행정법을 간단하게나마 복습했습니다. 행정학을 복습할 때는 필기를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암기까지 욕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새행정학 교과서는 한 번밖에 읽지 못했지만 처음 행정학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학 예비순환까지 마치고 나서 12월이 되었는데, 이 때 1차 과목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언어논리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지만, 처음 시간을 맞추어 풀어 본 모의고사에서 상황판단과 자료해석이 모두

40점대 점수가 나와 PSAT공부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NEO-PSAT 교재 중에 유형 별로 나와 있는 것을 풀면서 시간 여유를 두고 문제를 푸는 것을 먼저 시작했고, 이때는 진도를 천천히(하루에 각 과목 여섯 문제정도) 나가면서 유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료해석 과목은 신헌 선생님이 쓰신 <신 2010 자료해석>이라는 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문제 푸는 패턴이 자세히 나와 있어 그 책을 공부한 이후에는 자료해석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유형별 문제집을 풀면서 12월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정치학 예비순환을 들으면서 PSAT 공부를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간 여유가 없었고 기말고사도 겹쳐서 정치학 예비순환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단은 PSAT에 집중했습니다. 1월에는 거의 매일 기출문제를 풀었고, 시험이 2월 6일이었기 때문에 1월 둘째 주부터는 시간을 맞추어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II. 2010년 1월~2010년 3월

PSAT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운이 좋게도 커트라인에서 두 문제 더 맞춘 점수로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내내 모의고사를 풀면서 특히 마지막에는 시간을 실제 시험 시간보다 짧게 잡아 연습한 것이 긴장된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느낀 것은 원래 공부하던 장소에서 편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 때에 비하여 훨씬 긴장이 되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과, 상황판

단 과목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게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판단 과목이 기출문제에 비하여 어렵게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접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나서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2009년 12월에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학 예비순환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순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학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정치학 강의를 최대한 빨리 듣고 경제학을 교과서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정치학 예비순환은 강제명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교과서와 강의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순환부터는 선생님 강의에 적응도 되고 재미도 느끼면서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정치학 예비순환을 마치고 경제학을 한 번 복습한 후 1순환 강의를 들으려 했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에 비하여 진도가 약간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을 복습할 때는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서 연습문제를 다시 풀고, 김진옥 선생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거시경제학은 김경수 · 박대근 교수님 공저를 교과서로 삼아 연습문제 위주로 복습했습니다.(경제학은 다음 순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습문제를 총 세 번 풀었습니다. 세 번째 풀 때는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이해는 되는 문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별로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경제학 복습을 마칠 즈음 1차 시험 커트라인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이번에

1차를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해졌습니다. 원래 진도대로라면 경제학 1순환 강의를 들어야 했지만, 6월 시험을 바라보고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경제학 2순환 강의를 바로 들었습니다. 1순환을 듣고 넘어가는 것과 2순환을 바로 듣는 것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김진욱 선생님의 2순환 강의는 문제풀이에 보다 집중되어 있어서 2차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순환 강의를 3월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간이 예상 외로 오래 걸렸습니다. 이때는 예습도 함께 했는데, 모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지만 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그 방식대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학 2순환 강의를 듣는 데 한 달 반 정도가 걸렸고, 4월 셋째 주쯤에야 행정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III. 2010년 4월~2010년 6월

행정법 예비순환은 김기홍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지만 류준세 선생님의 워크북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류준세 선생님의 2순환을 들었습니다. 2순환 강의는 워크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는 혼자서 예습할 때 읽고 워크북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은 하지 못했고, 강의를 들으면서 워크북에 실린 체계를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법 2순환을 듣는 도중에 슬럼프가 와서 계획한 진도대로 빨리 끝내지 못하고 5월 초순이 되어야 마무리했기 때문에 행정학과 정치학은 강의를 한 번 더 듣지 못하고 교과서를 나름대로 복습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행정학은 예비순환 때 썼던 <행정학의 맵과 틀>만이라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2차 시험을 보는 것을 목표로 했고, 1주 반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치학 또한 강제명 선생님의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을 목표로 1주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5월 셋째 주까지를 정신없이 보내고 2차 시험이 다가오자 정책학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어차피 못 볼 것이라면 강의라도 한 번 듣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책학은 정경호 선생님의 1순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위주로 공부했고, 행정학 내용과 연계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차 시험 전에는 행정법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는 데 일주일 정도를 투자했는데, 워크북 중심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2차 시험을 보면서는 그 다음 날 불과 과목을 전부 본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공부하는 데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공부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 가장 자신이 없었던 경제학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느꼈기 때문에 비교적 다음 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했고, 행정학과 정책학의 내용을 서로 연계해서 활용한 것이

공부한 양은 많지 않지만 답안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IV. 면접 준비

생각지도 않았던 2차 합격 소식을 듣고 바로 면접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했는데 7명의 스터디원들 모두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스터디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면접시험 날과 동일한 순서로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두 조로 나뉘어서 개별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합격생 한 분을 섭외해서 피드백을 받았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면접 전까지 4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3주차부터는 조인트 스터디를 매일 잡아서 면접장에서 같은 조가 될 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조인트 스터디는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험장에 가서 같은 조에 얼굴이라도 아는 분이 섞여 있으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50명 정도는 만날 수 있도록 7-8회 정도 잡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공이 많이 부족한 채로 합격한 터라 다른 분들의 수기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보를 얻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도와 순환을 따라가는 것 모두가 좋은 방법이었지만, 제 경우에는 진도가 늦어지더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진도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건강하게 수험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가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 새 도착점에 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써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